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0. 21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1,837.0p(-3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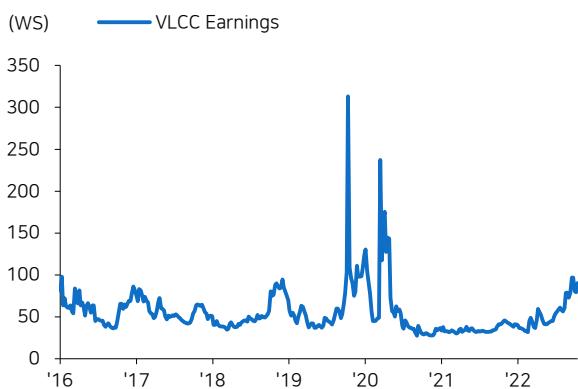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14.0p(-10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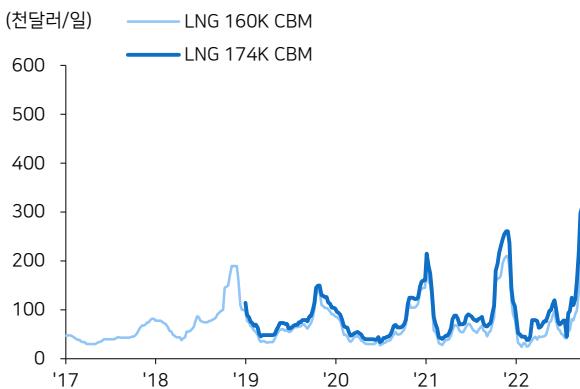


VLCC Spot Rate

90.5p(+11.0p WoW)



LNG Spot 운임

396.3p(+70.0p WoW)
485.0p(+6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3p WoW)
174.7p(-1.1p WoW)

항공시장 지표

219.9p(-3.3p DoD)
86.7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7일 단축 검토…방역 완화하나

중국의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호텔 격리 2일과 자가격리 5일로 단축되는 방안임. 중국이 격리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탓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짐. (이데일리)

Aramco and Adnoc lead massive oil and gas investment push

Aramco와 Adnoc이 중동 석유 및 가스 증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주요 업체인 QatarEnergy, 이란 석유공사(NIOC) 등도 증설 진행 중에 있음. Aramco는 현재 12MBPD에서 2027년 최소 13MPBD까지 증설할 계획임. Aramco는 CAPEX 가이던스를 2021년 319억달러에서 2022년 400~500억달러 수준으로 공개한 바 있음. 한편, Adnoc는 향후 2026년까지 4년간 증설에 1,27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5MBPD 확보 계획을 2030년에서 2025년까지로 앞당긴다고 언급됨. (Upstream)

Sempra announces amended \$10.5 billion contract for Port Arthur LNG

Sempra Infrastructure과 Betchel Energy가 약 105억달러 규모 Port Arthur LNG Phase 1 EPC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Port Arthur Phase 1은 2개의 액화Train과 LNG 저장탱크로 구성될 계획임. 완공 시 Phase 1은 13.5MMTPA의 수출이 가능하게 됨. 완공 시점은 기존 2024년에서 2028년 6월로 연기됨. 한편, Phase 2도 Phase 1이 완공되기 전 비슷한 규모로 착공될 예정으로 알려짐. (Upstream)

Norway's oil and gas output declines in September, missing targets

노르웨이의 9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보도됨. 원유는 평균 1.64MBPD로 8월 1.78MBPD, 예상치 1.82MBPD를 하회함. 천연가스 생산량은 평균 303MMCMD(일일 백만큐빅미터)으로 전망치 324MMCMD를 하회함. 노르웨이의 매장량 중 약 40%를 차지하는 Troll 유전의 보수작업으로 가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함. (Upstream)

에너지 위기 유럽, 저렴한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 4배 늘려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이 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값싼 브라질산 에탄올을 쓸어 담고 있다고 보도됨. 브라질이 2022년 9월말기준 유럽으로 수출한 에탄올 양은 51.6만CBM으로 전년동기대비 4배 증가함. 에탄올은 휘발유와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첨가제로, 석유보다 가격이 싼 특징이 있음. 특히, 지난 7월 브라질 정부가 휘발유와 에탄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며 가격이 더 하락하며 수출이 증가한 바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탱커 발주, 상업성 없다

Ridgebury Tankers에 따르면, 친환경 연료의 미래가 불확실해 지금 탱커를 발주하는 것은 상업성이 없다고 보도됨. 탱커 오더북이 적은 이유는 선주들이 발주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함. 오더북이 작아 향후 2년간 운임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언급함. 현재 VLCC 오더북은 전체 운항 선대의 약 4% 수준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을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